

전남도 '폐플라스틱 수산물' 공포 없앤다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 나서 전담팀 운영·바닷가 지킴이 사업 확대

전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나선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폐플라스틱 수산물'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게 청정 전남해역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뱃속에 폐비닐이 가득한 홍어, 폐플라스틱을 먹은 바다거북이 이따라 발견되는 등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2022년 해양쓰레기 제로화가 목표다.

서남해를 끼고 있는 전남은 2017년 기준 해양쓰레기 2만6713t이 발생했고, 이 중 2만1059t을 수거했다. 수거율 79%로 전국 1위 수준이지만, 그동안 쌓인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8만7482t으로 여전히 많다.

자체 용역 결과, 발생원인은 호우로 육상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2%, 폐어망·어구 등 해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51%, 중국 등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쓰레기가 47%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2차 피해를 일으키고, 폐어망·어구 등 수중 및 침적 쓰레기 처리의 책임성 모호, 연안 16개 시·군의 현저한 인식 차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유인책 부족, 해양쓰레기 전문처리시설 부족 등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남도는 네가지 측면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구체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예방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연안 정화의 날과 연계해 매분기 지정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예방, 수거·처리 재활용 등 해양쓰레기 관리 전반을 주 내용으로 한 통합매뉴얼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수매사업을 확대하고 어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폐어구·폐로프 100원/L, 통발어구 150~250원/개, 페스티로폼 250원/kg인 수매사업의 예산을 올해보다 4억5000만원 늘려 총 15억3400만원으로 증액, 수거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해양환경공단 및 한국어촌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부유·침적 쓰레기 수거목표를 1900여t에서 3000t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국화된 '바닷가 지킴이 사업'을 확대(50명→100명)하고, 수거 중심에서 수거와 감시·관리까지 기능을 개편한다. 연안 16개 시·군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연 2회에 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은 재정인센티브 2억원 제공과 전남지사 표창도 실시한다. 현장 중심의 해양쓰레기 처리 확대를 위해 선상집하장 수거방식을 개선하고 50호 미만 소규모 도시의 쓰레기 수거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해양쓰레기 재활용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내년 완도전북폐자자원화센터 준공에 맞춰 폐각을 비료·사료·공업원료 등으로 자원화를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Up-cycling) 작품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추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올해보다 40억원 늘어난 253억 원을 책정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전남도의 이번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선임 3개월만에 사표 3급 민주인권평화국장 공모 '기획 사직' 논란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개방형 4급 서기관) 윤모(62)씨가 선임 3개월여 만에 사직하면서 신설되는 민주인권평화국장(개방형 3급 부이사관)으로 직급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 '기획 사직'을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4급 서기관 자리였던 인권평화협력관실이 민주인권평화국으로 승격되면 서 부이사관 자리가 새로 생겼고, 윤씨가 사실상의 한 단계 승진을 위해 사표를 낸 뒤 민주인권평화국장에 다시 재공모한다는 것이다. 윤씨는 내년 1월 2일자로 사직서를 낸 상태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내년 1월에 진행하는 민주인권평화국장 채용 자체가 '내정자들'을 채 진행하는 형식상 공모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고, 광주시의 조직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 씨는 이용섭 광주시장 선거 캠프에서 정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때문에 인권평화협력관 채용 당시에도 '낙산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권평화협력관 실을 민주인권평화국으로 승격하면 민주인권과, 5·18선양과, 남북교류과 등을 설치하고 민주인권평화국장을 뽑는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방형인 인권평화협력관이 사라지면 윤씨가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이며,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공모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내년 1월에 공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 행정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인권평화협력관 개방형직위 해제 및 민주인권평화국장 개방형직위 지정 요청', '개방형직위 민주인권평화국장 채용의뢰' 등 민주인권평화국장 공모와 관련된 주요 결재 라인에 윤씨가 '검토자'로 기록되어 '셀프 인사'의 우려도 높다.

이와 관련 윤씨는 "민주인권평화국장에 공모하기 위해 행정 절차상 인권평화협력관 직의 사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직하게 된 것"이라면서 "민주인권평화국장 공모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것은 현재 인권평화협력관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권평화협력관 실을 민주인권평화국으로 승격하면 민주인권과, 5·18선양과, 남북교류과 등을 설치하고 민주인권평화국장을 뽑는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방형인 인권평화협력관이 사라지면 윤씨가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이며,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공모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내년 1월에 공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 행정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인권평화협력관 개방형직위 해제 및 민주인권평화국장 개방형직위 지정 요청', '개방형직위 민주인권평화국장 채용의뢰' 등 민주인권평화국장 공모와 관련된 주요 결재 라인에 윤씨가 '검토자'로 기록되어 '셀프 인사'의 우려도 높다.

이와 관련 윤씨는 "민주인권평화국장에 공모하기 위해 행정 절차상 인권평화협력관 직의 사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직하게 된 것"이라면서 "민주인권평화국장 공모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것은 현재 인권평화협력관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미디어아트와 무용·음악의 만남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연출한 융·복합 예술공연 '초월II'가 26일 오후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렸다. 공연은 27일 오후 7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한차례 더 열린다. /나주=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에 전국 최초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문 열어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난임부부 등 심리 상담

전남에 전국 최초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등지를 들었다.

전남도는 26일 문동식 보건복지국장과 22개 시·군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 관계자, 의료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을 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전남도의 위탁을 받아 난임부부, 임신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심리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위한 전용상담실, 가족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검사실 등을 설치하고 전문의료진과 상담전문가, 간호사 등을 배치해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 가정뿐만 아니라 임신부와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도 지원한다. 상담 수요를 파악한 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문동식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마 품같은 존재가 되달라"며 "도에서도 난임 환자와 임신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상무지구에 택시 운전원 힐링 쉼터 개소

택시 운전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택시운전원 힐링 쉼터가 조성된다.

광주시는 27일 오후 2시 서구 치평동 해광한신아파트 상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장재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택시조합 및 택시노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운전원 힐링 쉼터 개소식을 갖는다.

택시운전원 힐링 쉼터는 민선7기 광주시장 공약사항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과로 및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우선 택시 운전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주변인 해광한신아파트 상가를 임차해 냉난방기, TV, 냉장고, 안마의자, 식사 공간 및 싱크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택시 운전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공간으로 조성했다.

택시운전원 힐링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시는 또한 힐링 쉼터가 운전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경우 권역별로 확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안전대진단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인센티브 4억 확보

광주시가 26일 세종정부 2청사에서 열린 '2018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17개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

2018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광주시, 자치구, 공사·공단, 시설관리자(민간)가 주체가 돼 관내 7351개소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627건 ▲현

장시정조치 329건 ▲정밀안전진단 16건 등 총 972건의 위험요소를 개선했다.

민관 합동점검에 시민을 참여시켜 안전점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형 시설에 비해 관심이 적은 소규모 시설까지도 점검해 안전문화 확산, 안전거버넌스 확대 등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광주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선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추진한 자치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확보한 인센티브 4억원을 남구, 북구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입점 선인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기름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